안녕하세요 1305호입니다.

지난 약 3개월정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황상 1405호에서 들리는 소리일 확률이 높지만, 소음이 대각선으로 아랫집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 노파심에 이렇게 1404호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주로 들리는 시간은 평일 오후 7,8시부터 12시 전후 및 주말입니다. 발망치 소리가 한 번 날 때마다 5회 이상의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는데, 소리의 간격을 들어보면 약간 빠르게 걸을 때 나는 소리로 생각됩니다. 어떤 날은 들리지 않는데, 어떤 날은 너무 심합니다. 최근에는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을 두드려 보기도 하였으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괴로운 때는 주말입니다. 새벽부터 들릴 때도 간혹 있으며, 주말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간헐적으로 발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발망치 소리가 날 시에는 제 집안 전체가 울려 헤드폰이나 귀마개를 해야할 정도입니다. 특히 평일 저녁 이후 시간이 집중적이어서 집에서 운동을 하시는 건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발망치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더이상은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과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윗집이 이사를 가서 빈집이 되자 발망치 소리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발망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대각선 방향으로도 소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윗집인 1405호에 층간소음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나, 만약 1405호가 아니라면 그 분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이렇게 1404호에도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404호 주민분께서도 바로 아랫집도 아닌데 이런 글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랫집은 윗집의 소음에 일방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으로 예상되는 모든 윗집 주민분들께 주의 부탁드리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건물의 설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충분한 방음재를 사용하지 않고 소음이 전달되기 쉬운 구조를 사용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이미 지어졌고, 주민들간의 배려만이 현재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1404호 주민분의 넓은 아량으로 제 상황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간에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1305호 올림.